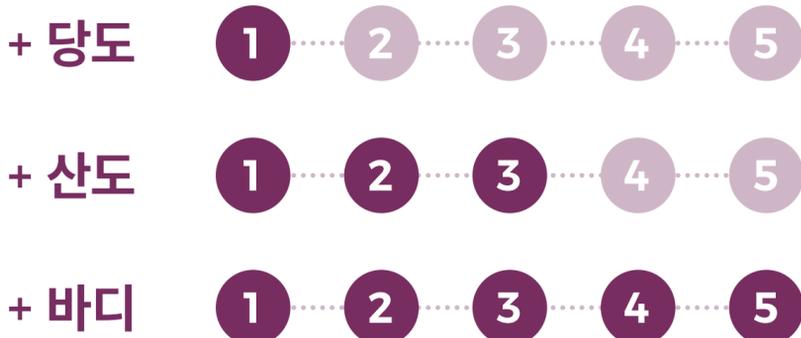




E.Guigal Hermitage Rouge Art Label

이기갈 에르미타쥐 루즈 아트레이블

김창열 화백의 작품 '물방울'을
레이블에 담은 와인



Type	레드 와인
Country / Winery	프랑스 > 론 / 이 기갈
Grape Variety	시라 100%
Capacity	750ml
Food Matching	붉은 육류요리, 치즈, 야생 가금류 요리

Information

자두, 무화과 등의 과일 향과 살짝 느껴지는 감초 향이 복합적인 아로마를 형성하며 실크처럼 부드럽게 정제된 탄닌의 우아한 맛과 동물성 아로마, 통후추의 스파이시함이 다채로운 여운을 남긴다. 30년 된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로 양조했으며 3년간 오크 숙성을 거쳐 출시한다.

Tip

에르미타쥐 루즈는 이기갈 와이너리가 자리한 론 북부의 와인 명산지이다. 18세기 말 유럽에서는 귀족들 사이에 보르도의 1등급 와인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을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다. 이기갈에서는 에르미타쥐 마을의 30년 이상 된 오래된 포도나무에서 재배한 최상급 포도만으로 와인을 양조해, 직접 맛춤 제작한 오크통에서 3년 숙성해 출시한다.

40년 넘게 물방울만 반복해서 그린 김창열 화백은 작업이 결코 “지루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물방울을 극사실적으로 영롱하게 그릴수록 오히려 부각되는 것은 그 존재의 일시성이다. 와인메이커가 수십 년간 매해 최상의 포도를 길러 한 방울의 와인을 만드는 것 역시 예술작업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비워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오랜 세월 노하우를 통해 완성된 우아한 풍미와 다채로운 여운의 향을 즐겨보시길 바란다.

“물방울을 그리는 행위는 모든 것을 물방울 속에 용해시키고 투명하게 ‘무 無’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행위이다. 분노도 불안도 공포도 모든 것을 ‘허 虛’로 돌릴 때 우리들은 평안과 평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혹자는 ‘에고ego’의 신장을 바라고 있으나, 나는 에고의 소멸(무아의 경지)을 지향하며 그 표현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 김창열 -